

대선주자들이 그린 대한민국 청사진

국민소득 4만弗... 7대 경제대국 진입

이명박



“이번 대선에서 국민은 정치보다는 경제를 택할 것입니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

박근혜



“이제 화합의 리더십으로 대한민국을 선진국 대열에 진입시켜야 합니다.”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

김근태



“평화가 밥입니다.” 한국 사회를 관통하고 있는 시대정신에 대한 질문...

이념의 시대 가고 경제의 시대 도래 北 핵포기 개방... 국민소득 3천달러

한반도의 평화도 결국 경제 문제라고 진단한 이 전 시장은 “남·북한이 함께 잘 살게 된다면 누가 전쟁을 시도하겠느냐”고 반문하며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 정책을 펼친다면 국제사회와 함께 10년 안에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이 3천 달러에 이르도록 할 수 있으며 통일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역과 계층으로 분열된 대한민국을 통합시켜 이를 성장의 에너지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한 이 전 시장은 구체적인 방법으로 ‘한반도 대운하 프로젝트’를 꼽았다.

규제 없고 일자리 넘치는 일류 선진국 대전~대구~광주 테크노벨트 성장축

러’라는 그림을 제시했다. 7%의 경제 성장률에 대해 박 전 대표는 5%는 지금 대한민국의 잠재 성장률이며, ‘플러스 2%’는 지도자의 몫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 보장되는 교육제도를 선도적으로 적용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또한, 감성이나 문화처럼 소프트한 자원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를 맞아 ‘문화’를 새로운 성장 동력의 핵심 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다는 점도 밝혔다.

경제 민주화... ‘따뜻한 시장경제’ 구축 ‘평화와 번영의 르네상스’ 시대 활짝

평화체제 정착으로 한반도 르네상스 시대를, 뉴딜과 사회대타협으로 경제 르네상스 시대를, 교식주(교육·일자리·주거) 문제의 해결로 사회 통합의 르네상스 시대를 개척하겠다는 것이 요지다.

조를 구축해야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주장이다. 호남의 미래 비전과 관련, 김 전 의원은 호남의 미래 비전은 민주적 역량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이라고 정의했다.



우주항공산업의 중심지 고흥군이 광주일보 창사 5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고흥군청 군수 박병중, 부군수 이종신, 경영기획실장 박정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한호, 보건소장 장용주, 지역활력화사업단장 임홍재, 행정지원과장 공현상, 문화관광과장 이재수,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식, 사회복지과장 임태수, 환경보전과장 박승호, 해양수산과장 김덕빈, 경제산업과장 우운기, 건설개발과장 김진상,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상인, 열린민원과장 유인석

- 농업기술개발과장 김오휴, 간척사업소장 조성필, 종합문화회관장 임신신, 우주센터지원소장 박준희, 고흥군의회 의장 송경석, 부의장 이재후, 운영위원장 김영길, 총무위원장 신태균, 산전위원장 김주식, 의원 배기홍, 의원 윤기욱, 의원 박금래, 의원 함채규, 의원 김의규, 의원 차성자, 의원 서향자, 의회사무과장 이훈섭

- 각급기관장 고흥·보성국회의원 신중식, 고흥경찰서서장 김학영, 한국전력공사 지점장 조영권 외 직원일동, 고흥지점 한국농촌공사 지사장 송기창 외 직원일동, 농협고흥군지부 지부장 이수영 외 직원일동, 고흥농업협동조합 조합장 류성진 외 임직원일동, 팔영농업협동조합 조합장 김정조 외 임직원일동, 흥양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송기재 외 임직원일동, 두원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송기두 외 임직원일동, 풍양농업협동조합 조합장 고영재 외 임직원일동, 고흥종합병원 이사장 류영식 외 임직원일동, 운호21병원 원장 이윤호 외 직원일동, 남옥건설대표 이윤남

